

간호사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유광수*, 서거석

*전북대 간호학과, 전북대 법학과

본 연구는 간호사의 법의식 수준, 법의식과 제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270명, 보건간호사 76명, 양호교사 77명, 보건 진료원 143명 도합 56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993년 5월 1일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간호사의 법의식을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으로 분류하여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치,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분석된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20~30세 그룹이 60.6%, 학력은 간호 전문대학졸업 그룹이 78.1%,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 그룹이 42.4%, 근무분야는 임상간호사가 47.7%, 근무경력은 1년이내 그룹이 47.0%를 차지하였다.

2. 법인지 경로는 대중 언론 매체(신문, TV)를 통한 경우가 78.6%로 나타난 반면에 학교를 통해서 법을 인지했다는 그룹은 불과 1.9%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매스컴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측면도 있으나, 학교교육이 법인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재학시 법률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근 최소학점인정전공제 실시의 여파로 여러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종래 법률관련 과목으로서 유일하게 설강되어

왔던 「의료법규」과목마저 전공과목에서 삭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들에게도 정기보수교육시간이나 연수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률강의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소망스럽다.

3. 전체 법의식 평균평점은 2.469이며, 법인식이 2.676으로 가장 높고 준법정신이 2.543,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 2.458,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2.198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준법정신은 높은 반면,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최대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려 하거나 관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연령 : 전체 법의식 $p<0.05$, 준법정신 $p<0.05$

결혼상태 : 법인식 $p<0.05$

근무분야 : 전체 법의식 $p<0.01$, 법에 대한 권리 의식 $p<0.05$, 준법정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